

AI 금도끼 은도끼

AI도움받아 윤지연쌤



작가프로필



2026년 5월기획 7월 완성

안녕하세요! 따스한 붓끝으로 꿈을 자아내는 동화 작가입니다.

그림 속 아늑한 서재처럼, 제 공간은 언제나 숲속 요정들과 다정한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안경 너머로 비치는 선한 미소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마법 같은 상상력을 책장에 차곡차곡 담아냅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수채화 빛 이야기로 모든 이에게 따듯한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지희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미래의 가상 현실 데이터 숲속에 착
하고 정직한 소년 나무꾼 돌이가 살
고 있었어요. 돌이는 매일 컴퓨터 시
스템을 망가뜨리는 악성 코드와 지
저분한 버그 나무를 베어내며 숲을
깨끗하게 지키는 성실한 아이였답니
다.

💡 1장 단어 돋보기
없음 (정겨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산더미처럼 불어난 바이러스
나무를 열심히 베던 돌이가 밀려오는
피로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폭 쉬었어
요. 온몸의 데이터 에너지가 바닥을 드
러내는 것만 같았지요.

"아따, 단내 나고 새빠지겠네! 온몸이
삭신이야."

💡 2장 사투리 돋보기

아따: 감탄사로, 무언가 답답하거나 놀라울 때 내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고된 상황을 나타내요.

새빠지겠네: '허가 빠질 정도로 몹시 힘들고 되다'라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예요.

삭신: 몸의 근육과 뼈마디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온몸이 쭈시고 아플 때 주로 써요.



그때였어요! 너무 힘들었던 탓에 그
만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이가
가장 아끼던 소중한 코딩 도끼 프로
그램이 가상 현실 속 깊은 '전설의
호수 데이터베이스'에 퐁딩! 빠지고
말았습니다.

💡 3장 단어 돋보기
없음 (도끼를 빠뜨린 돌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돌이가 울상을 짓고 있자 호수 스크린이 번쩍이더니, 하얀 머리에 긴 수염을 휘날리는 AI 산신령님이 영롱한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셨어요. 신령님 양 손에는 번쩍이는 황금 도끼 프로그램과 은 도끼 프로그램이 들려 있었죠



4장 단어 돋보기

없음 (홀로그램 신령님이 멋지게 나타나셨어요!)



신령님은 호수 공간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구수한 목소리로 돌이에게 물으셨어요.

"뭐시여? 야가 왜 여기서 울고 있냐? 너, 뭐때시 그라고 있냐? 이 번쩍번쩍한 황금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면 요은 도끼가 네 도끼냐?"

💡 5장 사투리 돋보기

뭐시여: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깜짝 놀라 묻는 전라도 사투리에요.

야가: "이 아이가(애가)"의 전라도 방언으로, 여기서는 돌이를 가리켜요.

뭐때시: "무엇 때문에", "왜"라는 뜻을 가진 구수한 사투리에요.

그라고 있냐: "그리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돌이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주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여요! 제 도끼는 그저 평범하고 낡은 검은
색 도끼 얹이여요."

그러자 산신령님이 무릎을 탁 치며 환하게 웃으
셨습니다.

"금게! 맞아 맞아, 그러그러! 요즘 세상에 참말로
정직하고 옹골진 청년이구만!"

💡 6장 사투리 돋보기

금게: "그러니까", "맞아" 하고 상대방의 말에 크게 맞장구치며 동의할 때 쓰는 말
이에요.

참말로: "진짜로", "정말로"라는 뜻을 가진 정겨운 표현이에요.

옹골진: 껍 짜여서 속이 아주 실하고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마음이 바르
고 속이 껍 찬 돌이를 칭찬하는 말이에요.



산신령님은 정직한 돌이에게 감동하여 황금
도끼와 은 도끼, 그리고 원래의 낡은 도끼까
지 몽땅 선물로 주셨어요. 상으로 받은 황금
도끼는 성능이 어찌나 좋은지, 숲속 과일 데
이터들을 아주 영글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
답니다.

"와, 이 도끼 프로그램 참말로 맛나다! 갱장
히 갱미가 있네!"

💡 7장 사투리 돋보기

영글고: 과일이나 곡식이 알차게 여물고 잘 익었다는 뜻이에요.

갱미(甘味)가 있네: '단맛이 있다' 또는 '음식이나 물건의 맛과 멋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사투리 표현이에요



문을 들은 욕심쟁이 '탐욕의 해커'가 나타나
화면 너머로 돌이를 무섭게 재려보며 황금
도끼를 빼앗으려 강력한 바이러스를 뿌렸어
요. 하늘에 천둥이 치고 비상벨이 울리는 위
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거시기, 좋은 말로 할 때 그 황금 도끼 내놓
으시지!"

💡 8장 사투리 돋보기

재려보며 : '재려보다'는 눈을 가늘게 뜨고 흘겨보거나 매섭게 노려보는 모양을 뜻하는 생생한 사투리에
요.

거시기 : 전라도에서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말을 꺼내기 쑥스러울 때 쓰는 아주 다재다능한 말이
예요. 여기서는 해커가 말을 위협적으로 시작할 때 썼어요.



돌이는 당황하지 않고 황금 도끼의 백신 기능을 실행했어요. 돌이의 용감한 반격에 해커의 바이러스 공격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맥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온 숲이 다시금 옹골지게 안정되었답니다.

💡 9장 단어 돋보기

옹골지게: (6장에 이어) 데이터 숲의 보안이 아주 튼튼하고 빈틈없이 채워졌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돌이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AI 산신령님은 인
자하게 손을 흔들며 따뜻한 조언을 건네셨어
요. 돌이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행복하게 데이터 숲을 가꾸어나갔답니다.
"암시랑도 얹여~ 정직하게 살면 다 복이 오는
법이야. 앞으로도 이 숲을 잘 부탁한다잉!"
투예요.

💡 10장 사투리 돋보기

암시랑도 얹여: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에요.
돌이의 감사 인사에 마음 넓게 답해주시는 장면이지요.
~한다잉: 문장 끝에 '이/잉'을 붙여 친근하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전라도 특유의 정겨운 말

